

2018년 우수기술 소개서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균성 조성물

A antibacterial composition comprising chitosan and caffeic acid

출원번호: 10-2016-0045664
등록번호: 10-1787247

목 차

I. 기술 분석	1
1. 기술 정보	1
2. 기술 개요	1
가. 기술 요약	1
나. 권리 범위	2
3. 기술의 우수성	3
가. 종래 기술의 문제점	3
나. 본 기술의 우수성	3
II. 기술 평가	5
1. 전체 평가 분석	5
가. WIPO 기술분야별 평가 분석	5
나. 동일 출원년도(2015) WIPO 기술분야별 평가 분석	5
다. CPC별 평가 분석	6
2. 평가지표별 평가 분석	6
가. 평가 요소	6
나. 평가 분석 결과	7
3. 총평	8
III. 시장 분석	10
1. 분석 개요	10
2. 시장 동향	10
3. 시장 전망 및 시사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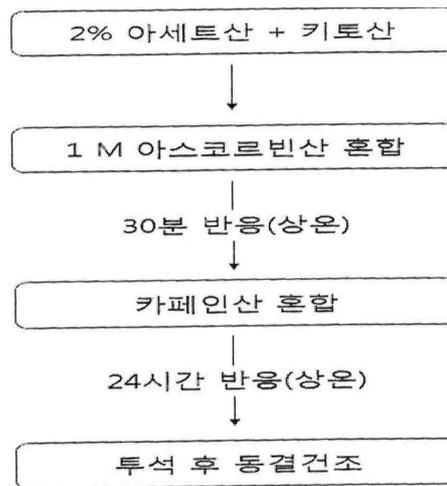
I. 기술 분석

1. 기술 정보

명칭	국문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균성 조성물		
	영문	A antibacterial composition comprising chitosan and caffeic acid		
출원번호	10-2016-0045664	출원일	2016.04.14	
등록번호	10-1787247	등록일	2017.10.11	
출원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김영목, 정원교, 제재영, 오정환, 고석천	

2. 기술 개요

가. 기술 요약



[대표도 :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 본 발명은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조성물은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에 대한 항균효과

를 나타내므로,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나. 권리 범위

대표 청구항

청구항 3

키토산을 초산 용액에 녹이는 단계와; 상기 단계의 용액에 ascorbic acid가 포함되어 있는 H₂O₂ 용액을 첨가하여 상온에 방치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의 용액에 카페인산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의 키토산-카페인산 화합물을 투석막을 이용하여 반응하지 않은 카페인산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의 키토산-카페인산 화합물을 동결건조를 통해 분말화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되는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와,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및 린코마이신(lincomycin)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의 항생제를 병용하여 함유하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Propionibacterium acnes*) 억제용 항균 조성물.

청구항 분석맵

1 Depth

3 항

5 항

1 Depth

방법
 물건
 포기

3. 기술의 우수성

가. 종래 기술의 문제점

- 키토산은 D-글루코사민 부분과 N-아세틸-D-글루코사민 부분으로 된 분자량 80만-100만 정도인 염기성 폴리사카라이드로 특성은 노폐해진 세포를 활성화하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며 질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생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기능과 함께 생체 리듬을 조절해준다.
- 카페인산은 커피콩 속에 퀴닌산과의 결합물(쿨롤로겐산)로서 다량으로 함유되는 페닐프로파노이드의 1종. 일반적으로 고등식물에 유리산, 메틸에스텔, 퀴닌산, 드물게는 글루코오스와의 결합물로서 널리 존재한다.
- 본 발명의 선행기술이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10-2000-0047003호에 공지되어 있으나 이는 방사선 조사된 키토산을 이용한 생체친화성 항균기능 의료용 섬유 제조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선행기술로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10-1120161호에 공지되어 있으나 이는 키토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균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균성 조성물에 대하여는 공지된 바 없다.

나. 본 기술의 우수성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키토산-카페인산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 감염에 의한 여드름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본 발명은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균성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에 의한 여드름 예방 및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II. 기술 평가¹⁾

1. 전체 평가 분석

가. WIPO²⁾ 기술분야별 평가 분석

평가지표	등급	대분류(바이오) [70,017건]	중분류 (바이오 기술, 의약 ²⁾ [36,024건]	소분류 (생물학적 제재 제외) [21,970건]
		백분위(%)	백분위(%)	백분위(%)
권리성 (35)	C	97.9	97.2	97.0
기술성 (35)	CCC	81.4	84.9	84.2
활용성 (30)	CC	90.8	92.8	92.5
종합평가 (100)	C	96.4	96.2	96.0

나. 동일 출원년도(2015) WIPO 기술분야별 평가 분석

평가지표	대분류(바이오) [6,318건]	중분류 (바이오 기술, 의약 ²⁾ [2,653건]	소분류 (생물학적 제재 제외) [1,697건]
	백분위(%)	백분위(%)	백분위(%)
권리성	97.9	32.5	32.4
기술성	68.3	26.2	24.6
활용성	85.4	30.6	30.4
종합평가	96.6	97.2	96.5

1)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SMART3 KR특허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자: 2018.09.26.) 활용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지적소유권기구)

다. CPC³⁾별 평가 분석

평가지표	A [122,446건]	A61 [53,932건]	A61K [23,740건]
	백분위(%)	백분위(%)	백분위(%)
권리성	98.8	98.1	97.5
기술성	62.2	79.7	82.5
활용성	93.5	90.2	92.3
종합평가	97.0	96.8	96.3

* A: 인간의 필수품

A61:의료 또는 수의학; 위생

A61K: 의약품, 치료용 또는 화장용 제제 (약학품을 특정한 물리적 상태 또는 특정한 복용형태로 하기 위한 특수한 장치 또는 방법 A61J3/00; 공기의 탈취, 소독 또는 살균을 위한 물질 또는 붕대, 피복용품, 흡수성 패드 또는 수술용품을 위한 물질의 화학적 측면 혹은 사용 A61L; {화합물 그 자체 C01, C07, C08, C12N}; 비누의 조성 C11D; {미생물 그자체 C12N})

* CPC별 평가분석은 WIPO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모델로 평가 한 점수로 상대 평가한 참고용 등급임

2. 평가지표별 평가 분석

가. 평가 요소

평가요소(단위)	평가요소 정보	평가요소(단위)	평가요소 정보
IPC수(개)	1	연차등록 회수(년차)	3
거절결정불복심판 수	0	우선심사 청구 여부	0
권리자 변동 수	0	의견서 제출 수	2
금융기관 질권설정 수	0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인용 수	0
도면 수(개)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0

3)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선진특허분류)

평가요소(단위)	평가요소 정보	평가요소(단위)	평가요소 정보
		기각, 취하, 각하 수	
독립항 길이(단어)	148	정보제공 수	0
독립항 수(개)	2	정정심판	0
무효 심판 기각수	0	조기공개 여부	0
무효 심판 인용 취하 각하 수	0	존속기간 연장등록 결정 여부	0
발명의 설명의 길이(단어)	1,009	종속항 수(개)	0
발명자 수(명)	5	종속항의 평균길이	0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수	0	청구항 계열 수(개)	1
선행문헌 중 논문/외국특허 수	2	총 피인용 수	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기각 수	0	피인용 특허의 인용문헌 중 논문/외국특허 수	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인용, 취하, 각하 수	0	피인용과 출원일 차이	0
실시권자 수(건)	0	해외 패밀리 국가 수	0

나. 평가 분석 결과

1) 권리성

- 권리성이란 평가대상특허가 제 3자와의 특허분쟁에서 독점배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권리성에 대한 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본 특허는 독립항수와 독립항의 길이 및 발명의 설명의 길이가 기술분야의 평균 이하이며, 이에 제출된 의견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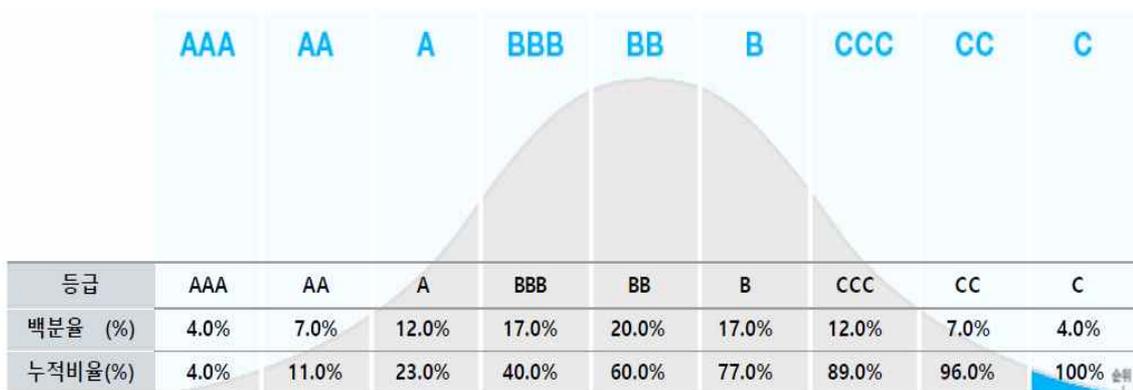
2) 기술성

- 기술성이란 평가대상특허가 기술동향과 부합하거나 선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기술성에 대한 평가등급은 "CC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본 특허는 선행문헌 중 논문이나 외국특허가 포함되어 있어 기술동향과 부합하고 있으며, 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5명이 공동 발명한 특허이다.

3) 활용성

- 활용성이란 평가대상특허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정도 및 활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 활용성에 대한 평가등급은 "C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본 특허는 3년차까지 연차료를 납부했다.

3. 총평



- 특허 제 10-1787247호,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균성 조성물"은 "바이오" 기술분야 특허 중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상위 96.4%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지표는 권리성 C등급(상위 97.9% 수준), 기술성 CCC등급(상위 81.4% 수준), 활용성 CC등급(상위 90.8%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III. 시장 분석

1. 분석 개요

- 대상 기술은 키토산-카페인산 유도체를 포함하는 항균성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여드름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 (Propionibacterium acnes)에 의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
- 이러한 항균성 조성물은 화장품 산업과 의약품 산업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화장품(cosmetics)의 안전성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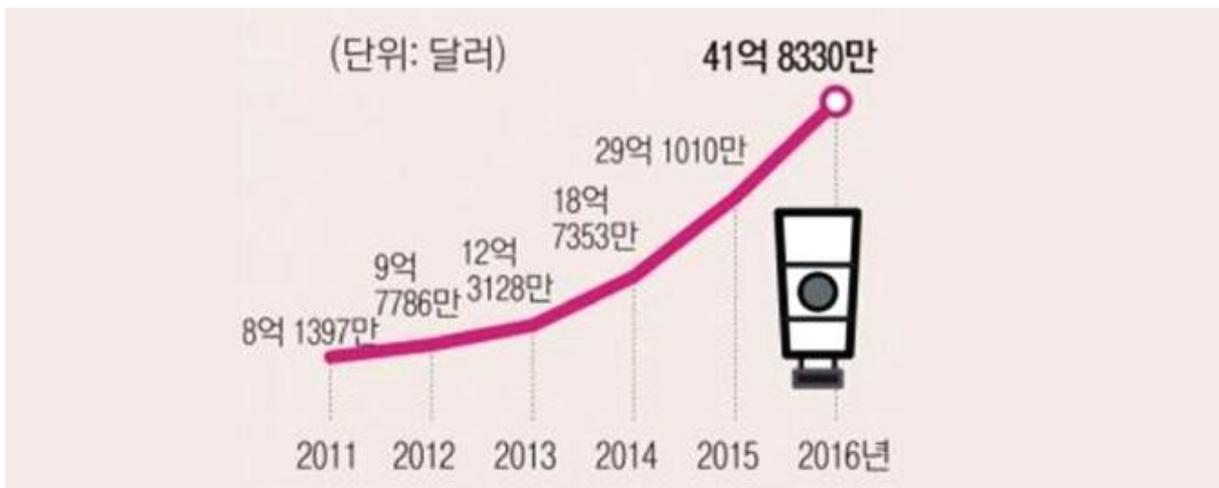
2. 시장 동향

가. 시장 개요

- 최근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웰니스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제품, 건강기능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 기존 식품, 화장품 등의 전통적인 산업에 바이오, 나노, 의료 기술 등을 접목함으로써 건강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융합제품을 양산하는 형태로의 변화 시도
- 화장품 산업의 경우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자사가 보유한 바이오·의약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주목
 - 이처럼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 산업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출주력산업으로 '16년 화장품 수출액이 5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조사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화장품산업 수출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41억 8,330만 달러(약 4조 7,899억원)로 전년보다 43.7% 증가
- 의료관광으로 실력을 인증받은 피부과 기반 화장품 업체의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스메슈티컬 산업 또한 동반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연도별 화장품 수출실적 통계]

나. 세계 시장

- 코스메슈티컬 세계시장 규모는 약 43조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7.5% 성장세로 나타남
-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 약 25%정도 빠른 성장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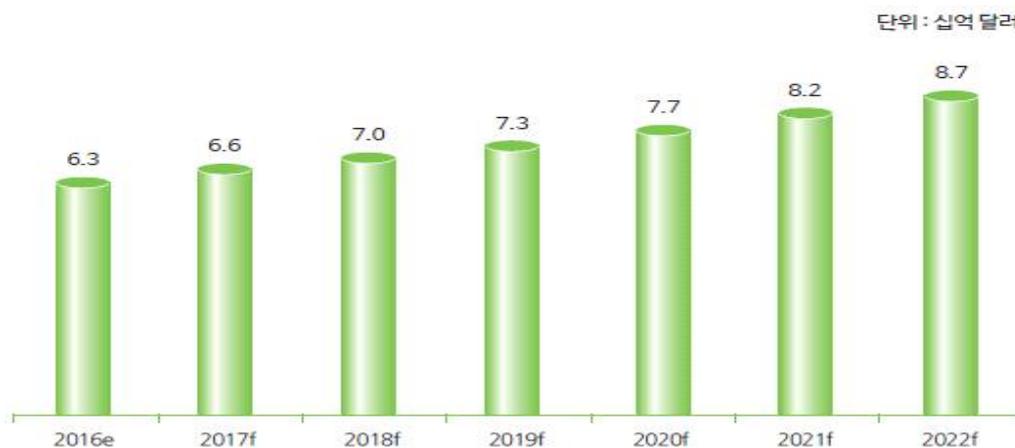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8.9%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유럽의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고령화의 증가,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편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신기술 기반 약용화장품에 힘입어 급속도의 성장세가 예상됨
- 2016년 63억 달러로 2017-2022년 기간 동안 GAGR 약 6% 성장이 예상되며 2022년 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자료 : 한국코스메슈티컬 교육연구소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



자료 : Europe Cosmeceutical Market Outlook 2022(RNCOS, 2017)

[유럽 코스메슈티컬 시장(2016-2022)]

다. 국내 시장

- 국내 시장규모는 약 5,000억 원 선으로 비중은 3.8%로 미미한 수준이나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시장 잠재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짐
 - 이에,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 그 외 의료기기 기업, 병원 등 타 분야에서도 코스메슈티컬 사업에 진출

라. 최근 동향

1) 소비자의 美에 대한 니즈 증가

- 인간의 美를 추구하려는 욕구는 피부과 시술의 대중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의사, 제약회사들이 치료목적의化妆품을 개발·유통하기 시작
 - 피부과 시술로 나타나는 피부 개선 효과를 가정용 화장품 사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사용 증가와 유통망 확대의 원인

[화장품 및 의약품과 코스메슈티컬의 비교]

구분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의약품
사용목적	아름다움의 추구	보조적 치료	병의 치료 및 예방
사용인	불특정 다수	병원 방문한 특정 다수와 일반인	특정인 환자
사용방법	매일, 장기적	장기적	대체로 일시적
사용원료	광범위한 모든 성분	보조적인 효능 중심의 성분	고시 성분 중심의 효과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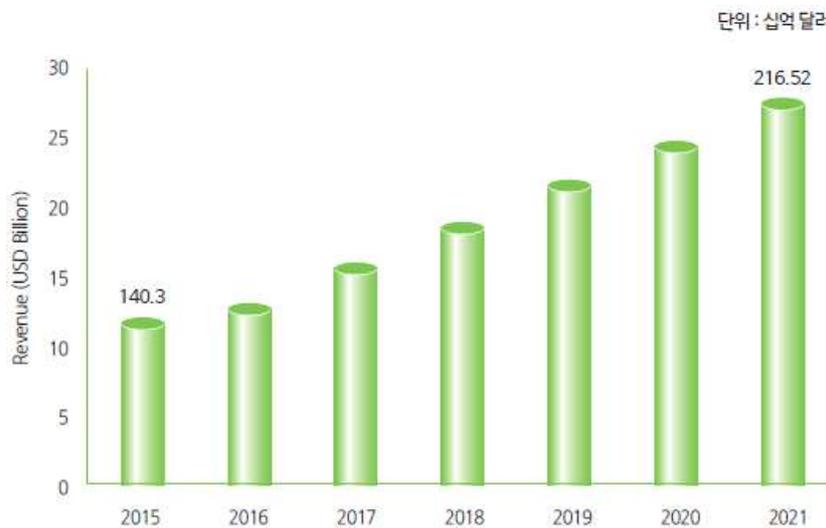
자료 : 코스인코리아(www.cosinkorea.com)

2)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항노화 시장 성장

-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대한 소비자의 관심으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코스메슈티컬의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화방지 제품의 수요 증가와 정비례하며, 노화방지

제품은 코스메슈티컬의 지배적 부문이기 때문에 코스메슈티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항노화 시장은 2015년 1,403억 달러에서 2021년 2,165억 달러로 성장하여 연평균 증가율 7.5% 기록 전망
-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20%)에 진입하여, 항노화 산업이 2011년 11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27조 원으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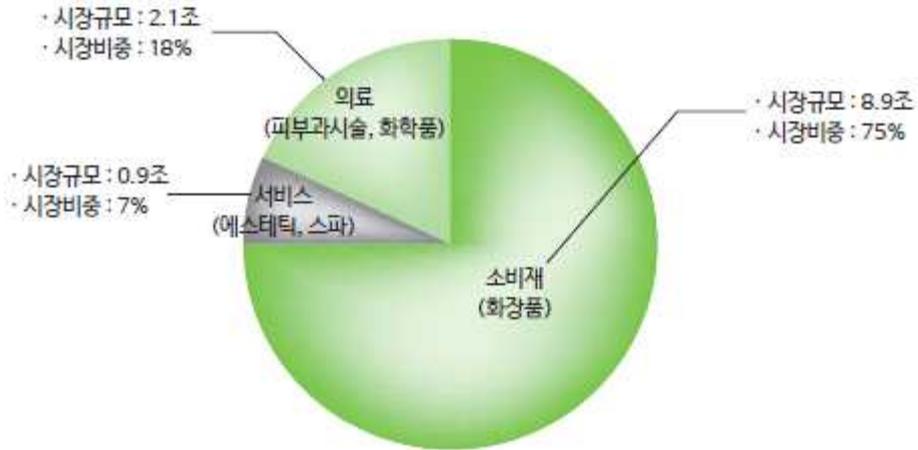


자료 : Zion Market Research, Anti-Aging Market, 2016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3) 솔루션을 장려하는 신제품 출시

- 기업에서는 노화방지뿐 아니라 여드름이나 홍조, 등과 같이 기타 피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제형 연구가 활발함
-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제조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실시됨에 따라 성장세가 예상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SERI),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안티에이징, 2013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 현황]

마. 주요 기업현황

- (해외) 북미와 유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약국형 슈퍼마켓들이 해외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코스메슈티컬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
-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비쉬, 아벤느, 라로슈포세 및 독일의 유세린, 피지오겔 등 유럽의 유명 브랜드가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선도

[해외 코스메슈티컬 대표 기업 및 제품]

구분	주요내용
비쉬 (Vic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로슈포세와 더불어 로레알 그룹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하나로서 비쉬 제품에는 프랑스 비쉬 지역에서 추출되는 미네랄 스파 워터인 비쉬 온천수가 함유 ○ 최근 비피더스균을 함유해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 '슬로우 에이지 라인'을 출시
아벤느 (Av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성 피부의 진정 효과 및 자극 완화 효과를 지닌 프랑스 온천수를 주원료로 한 약국 화장품 ○ 최근 아시아 최초의 아벤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코엑스)하여 전문적인 피부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개인별 피부 진단 및 적합 제품, 케어 방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라로슈포세 (La Roche-Pos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중부 지역의 온천 도시 이름인 라로슈포세는 피부과 의사들이 과민감성 피부를 가진 환자를 위해 처음 출시한 브랜드 ○ 피부 진정 및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온천수가 전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셀레늄(미네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레르기 유발 최소화를 위해 제한된 성분만을 엄선하여 사용하며 방부제, 파라벤, 향, 알코올, 색소, 라놀린 등의 성분을 모두 배제 최근 출시한 '유비데아 BB'는 한국인의 피부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톤 연출을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울긋불긋한 피부톤이나, 잡티, 여드름 커버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
피지오겔 (Physiog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피지오겔'은 아토피와 같은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 피부지질과 동일한 이중지질층을 재현하는 DMS(Derma- Membrane-Structure)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피부친화적 보습 화장품 올리브, 이스트, 야자열매, 대두, 시어버터 등에서 주성분을 추출하고 알레르기 및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향, 색소, 방부제가 없는 3無 저자극 제품으로 남녀노소 얼굴과 전신 모두 사용가능 관련 제품은 피부과 판매로 시작하였으나, 유통채널을 대형마트, 백화점, 약국,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으로 다각화
오바지 (Oba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대표적인 병원 전문 화장품 피부재생 프로그램 '누덤시스템'(Nu-derm System)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는 제품으로 클렌저, 토너, 컨트롤 제품(미백, 각질제거, 탄력부여), 자외선 차단제 등 제품으로 구성 피부 세포 기능과 순환을 강화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줌(새로운 세포를 표면으로 밀어 올려 세포 전환속도를 증가시키고 과색소침착 교정 및 콜라겐과 엘라스틴 형성 증가 등)

자료 : 2017 융합정책연구센터

- **(국내)**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약 25개사 내외의 제약 기업, 약 18개 내외의 바이오 기업이 진출 하였으며, 그 외 의료기기 기업, 병원에서도 코스메슈티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화장품 업계를 주도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의약품기술을 보유한 제약사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
 - 아모레퍼시픽 그룹 주요 계열사 태평양제약은 에스트라*로 사명을 변경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디컬뷰티 브랜드로 진출 계획
- LG생활건강은 케어존, 더마리프트 외에도 '14년 말 차안박화장품으로 유명한 CNP코스메틱스를 인수하고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가세
 - 뿐만 아니라 동국제약과 대웅제약 등 제약사를 중심으로 코스메슈티컬 관련 제품 개발. 국내 화장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현재 해외시장으로 확대 추진 중

[국내 코스메슈티컬 진출 기업 현황]

구분	화장품
화장품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브앤비, 씨애플코스메틱스, 이지함화장품, 넥스트BT, 고운세상코스메틱, 리젠, 미가코스메틱, 쉐트리온스킨큐어, 메디웨이코리아, 아미코스메틱, 씨에이팜, 씨엠에스랩, 에이치피앤씨, 아우딘퓨처스, 엘애플코스메틱, 파코메리, SD생명공학, 닥터엘시아, 닥터크롬셀, 더코스라이즈, 라비오프, 메디스킨홀딩스, 미네랄바이오, 바이허브(주), 셀아이콘랩, 셀트루먼트, 스킨이바이오, 스킨메드, 스킨큐어, 아리지온, 오베론코스메틱, 잎스코스메틱, 이노진, 정진호이펙트, 제이앤팜, 존제이콥스, 코메랑, 휴메이저
제약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K, JW중외제약, 갈더마코리아, 국제P&B, 나노팜,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삼성제약, 신풍제약, 에스트라,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오츠카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함소아제약,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온스, 휴젤파마
바이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스템바이오텍, 나이백, 네이처셀, 라파스, 메디포스트, 서울프로폴리스, 세원셀론텍, 씨트리, 아리바이오, 아미코젠, 엘앤씨바이오, 원진바이오에이치씨, 캐럿티카, 케어젠, 테고사이언스, 티에스바이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의료 관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 루트로닉, 원텍(원메디코), 하이로닉 ○ 성형외과(플라코스메틱) : 그랜드성형외과, 마인성형외과, 바노바기, 바이준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아이디성형외과, 오앤영성형외과, 울트라브이, 제이준성형외과, MVP성형외과 ○ 피부과의원 : 오라클피부과, 닥터노트, 웰킨, 더삼점영 ○ 한의원 : 고운결한의원, 우보한의원

자료 : 2016 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임팩트

3. 시장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및 코스메슈티컬로의 화장품 트렌드 변화
 - 단순 화장품 시대는 가고, 전통적인 화장품 회사뿐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름개선, 안티에이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메슈티컬이 화장품 틈새시장에서 성장 중
- 유럽, 미국 등은 선천적인 피부 특성과 대체 의학적인 관점,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을 선점
 - 유럽 및 북미와의 격차를 줄이고, 중국, 일본 등 후발기업들과의 기술격차는 더욱 벌리기 위해 국내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바이오, 의료 기반의 우수 기술력과 화장품 인지도를 바탕으로, 에코, 한방 등으로 제품 차별화, 홍보·마케팅 활성화, 유통채널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시도 필요
-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소비자의 니즈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허위 및 과장 제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규제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기준의 불확실성은 자격미달 제품의 출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코스메슈티컬의 신뢰성 저하를 야기 시키고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함
 - 현재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라벨과 광고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으며 안전성 제고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원료, 임상사례 등 관련 시장의 조사·분석을 통한 기초 자료 확보가 기본이 되어야 함